

“불법 수사 의뢰”... 이틀 뒤엔 시설 허가

시, 철거 명령 없이 절대보전지역 무단 시설 허용 수사 의뢰한지 이틀 만에 승인... 전례 찾기 힘들어 환경단체 “명백한 특혜... 도감사위원회 조사 필요”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하며 설치한 불법 시설에 대해 제주시가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유지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시점은 시가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 만이다. 행정당국 스스로 ‘불법’이라고 규정한 시설을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합법 시설로 탈바꿈 해준 격인데, 전례를 찾기 힘들 뿐더러 허가를 내준 판단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환경단체 사이에선 “명백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왜 이제야 수사 의뢰=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도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5.56MW(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부지는 한림 앞바다와 맞닿은 해안가로, 절대보전지역도 일부

포함돼 있다.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하수도, 무선설비 등은 제주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자 측은 이 규정에 따라 한림읍 내 절대보전지역 1.3km² 중 사업 부지에 속한 1331㎡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사업자는 절대보전지역인 해안가 암반을 파내 해상 풍력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을 육상으로 보내는 용도의 케이블을 매립했다.

절대보전지역 훼손 의혹은 사업자가 지난해 11월 29일 시에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사업자는 당초 허가 받은 면적보다 250여㎡가 넓은 1500여㎡에서 케이블을 매립해야 한다며 절대보전지역 개발 구역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이 때는

당초 허가 구역을 벗어나 절대보전지역에서 터파기와 매립 공사가 끝난 상태였다. 시는 불법 공사 정황을 포착하고 올해 1월 초 현장 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업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달 26일이다. 적어도 올해 1월 불법 공사 정황을 확인했지만 6개월 간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가 없었다. 수사 의뢰도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3일 후속 조치에 대한 주문을 쏟아내고 나서야 이뤄졌다.

▶수사 의뢰 이틀 뒤 변경 허가=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은 구석은 또 있다. 시는 수사를 의뢰한 지 이틀만인 지난달 28일 사업자가 신청한 절대보전지역 개발 변경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관할관청이 불법 건축·시설물을 발견하면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불법 시설은 오히려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도 허가 없이 절대보전지역을 개발해놓고 뒤늦게 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해준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례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림해상풍력사업 공사 진행률은 93%로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불법 시설된 케이블을 철거하면 계획한 송전이 불가능해 준공에 차질을 빚는다.

‘사후 허가’에 대한 판단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제주특별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해선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대보전지역에 시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선 이미 개발 행위가 끝나 원래 모습이 사라지는 등 원형이 어떤 형태였는지 알 수조차 없는데도 허가가 이뤄졌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원형 훼손 범위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문번호 조사 자료와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판단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보존 가치가 가장 높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한 시설물마저 허용하면 어떻게 제주도가 자연보전을 말할 수 있겠느냐”며 “명백한 특혜로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기자



우도서 전기오토바이 화재 잇따라

사흘간 세차레... 피해 오토바이 모두 ‘리튬 배터리’ 소방당국, 배터리서 화재 시작 추정·정밀 감식 의뢰

경기도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에 이어 최근 제주에서도 사흘간 세차레나 리튬배터리 전기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배터리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의 한 대여점 외부에 세워둔 전기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이날 불은 출동한 119에 의해 최초 신고 접수 후 30분 만인 오전 7시33분쯤 완전히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 오토바이 14대가 전소되고, 5대가 부분 소실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9시4분쯤과 오후 8시37분쯤 2차례에 걸쳐 전기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해 18대가 불에 탔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이번과는 다른 보관 장소이지만,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모두 리튬 배터리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극과 음극, 이를 분리하는 분리막과 전해질 등으로 구성된 리튬 배터리는 분리막이 손상될 경우 양극과 음극이 충돌하며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발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열폭주’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물로는 잘 꺼지지 않으며 일반 소화기로 진화도 어렵다.

이번 오토바이용 배터리 화재의 경우 배터리 크기가 작아 양극재의 상호반응이 비교적 빠르게 끝나면서 물로도 진압 가능했지만, 만약 자동차용 배터리 정도만 됐어도 큰 피해로 번질 뻔했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최근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시 리튬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사망한 것에 이어 일주일 뒤인 지난 1일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 하행선 선로를 이동 중이던 작업용 모니카 내부에 장착된 리튬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우도에서도 배터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행정당국의 관련 안전점검에서 배터리 관련 항목이 제외되는 등 관리 감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계 법령에 의해 매년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는 작동 여부 등을 위주로 점검이 이뤄졌다. 배터리 종류와 안전성 여부 점검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화재사건을 계기로 소방, 행정시와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관련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도면에서는 전기오토바이 945대 중 100대가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태풍급 강풍’ 휩쓴 제주 항공기 결항·피해 속출

제주지역에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비행기 결항과 함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제주도북부, 북부 중산간, 제주도산지에는 강풍 경보가, 나머지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한라산 입산은 전면 통제됐으며, 제주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2일 하루 제주공항을 오갈 항공기 480편(국내선·국제선)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내선 42편(출발 21편·도착 21편)이 결항했다. 또 104편(국내선 99편·국제선 5

국내선 출발 Departures						항공기 무더기 결항·지연					
시각	변경시각	목적지	항공사	편명	탑승수속	상태	시각	변경시각	목적지	항공사	편명
13:00		부산	대한	LJ564	15-21	결항	16:25	16:45	군산	진에어	ZE304
15:00	16:05	부산	제주항공	BX8110	48-52	지연	16:25	16:55	김포	제주항공	7C126
15:10		김포	진에어	OZ8950	53-62	지연	16:30	16:50	부산	제주항공	BX8112
15:30		김포	미스타항공	ZE220	42-44	미정	16:30		김포	진에어	KE1266
15:50		김포	에어웨이	TW724	30-36	결항			대구	진에어	
15:50	16:50	김포	진에어	KE1254	1-12	지연			주	진에어	
15:55	16:20	김포	진에어	OZ8956	53-62	지연			광주	진에어	
16:00		부산	대한	LJ570	15-21	지연			대구	진에어	
16:10	16:45	광주	진에어	KE1620	1-12	지연			광주	진에어	
16:10		김포	진에어	KE1264	1-12	지연			김포	진에어	

편)이 지연 운항했다. 제주도 전역에 강풍 특보가 내려진 2일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수십편이 지연·결항됐다. 이상민기자가

바닷길도 일부 차질을 빚었다. 제주항 여객선터미널에 따르면 제주를 잇는 6개 항로 10척 중 3항로 4척(풍랑주의보 2척·선박검사 2척)이 결항했다.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아파트 외벽이 떨어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다. 김재현기자

감귤 신제품 분양

2025년 최고 품종안내

만감류(기술원 보급종)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아마나스, 황금향, 탐나는 봉, 카라향

온주
유라조생, 하례조생, 오히라베니(궁천변이자), 궁천, 고림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2025년 예약 주문 받습니다

미래향,우리향 사라향,달코미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신비향,수라향,설국향 궁천 5년생,홍미향(화분)

※ 감귤묘목 품종 전량 보유
※ 신제품 다수보유

서귀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6677-5753, 064-733-7005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 카라향 - 윈터프린스
- ★조생 - 유라 - 궁천
- ★기타 - 레몬 - 하굴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이(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씨니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 하는 것도 불법) 농가에서도 타 업체에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 부터 접수 나눔(고점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로 판매를 못합니다. (적발시 형사처벌 합니다)

★시정 조치 현황 · 농가 : 17 농가 · 업체 : 1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묘목

- ▲유라조생 1,3년생 ▲한라봉 2,3년생
- ▲궁천 2,3,4년생 ▲황금향 2,3년생
- ▲레드향 1,3,4,5년생 ▲하례조생 2,4년생
- ▲천혜향 2,3,4년생 ▲레몬 4년생
- ▲하굴 4,5년생 ▲오히라베니 3년생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